

#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대한민국역사박물관  
大韓民國歷史博物館



Branding a New National Museum:  
Museum of the State? Museum of the People!  
Moon, Keun-sil(文謹實)





# Introducing the Museum

---

## Exhibition

- First national museum solely dedicated to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present
- 4 Permanent exhibition halls
  1. Prelude to the Republic of Korea (1876-1945)
  2.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945-1960)
  3.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61-1987)
  4. Modernization and Korea's Vision of Future (1988-Present)

# 1. Prelude to the Republic of Korea(1876~1945)



# 1. Prelude to the Republic of Korea(1876~1945)





**5·10 총선거**

유엔의 권유에 따른 총선거 날짜는 1946년 5월 10일로 결정되었다. 5·10 총선거는 21세 이상에 달하는 남자에게 최초로 실시된 무비밀 투표 '총선거'로, 자유 선거의 일부로 인정되었다.

남측의 과반은 5·10 총선거를 거절하고 제정하여, 일본 장교들은 남측 및 일본 주둔군에게 동맹하였다. 그러나 미군들은 남측에 5·10 총선거를 주요로 92,9%로,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한국의 5·10 총선거를 거절 해오던 정부 당국이 주권자가 되었다.

**May 10 General Election**

The UN-sponsored general election scheduled for May 1946 was fiercely opposed by fellow business in both Korea and opposed by some resistance after the Korean War. In a spirit of the past, despite the contribution, 92.9% of the observed and participated in the Free election in Korean history.



## 2.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1945~1960)





### 3.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1961~1987)





### 3.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1961~1987)



### 3.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1961~1987)





## 4.Modernization and Korea's Vision of Future(1988~Present)



## 4.Modernization and Korea's Vision of Future(1988~Present)





# Children's Museum



# Promotional Video





# Introducing the Museum

---

## Background

- 2008  
Plan for establishing the Museum announced in August
- 2009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useum made in April
- 2010  
Detailed plan confirmed in March  
Construction work began from November  
Exhibition design and making started from December
- 2012  
Building completed and installation of the display started in May  
Opened on December 26<sup>th</sup>



# Introducing the Museum

---

## Circumstances

- Disadvantages  
Smaller in size  
No masterpieces
- Questions and Doubts  
Dealing with contemporary history  
Conflict between the two political parties



# Branding Strategy

- Definition  
"A brand is a set of associations that a person makes with a company, product, service, individual or organisation."  
(Design Council England)
- Adopting the changing social role of museums  
Catalyst for positive social change  
Interacting and co-operating with the public  
Sharing ideas and co-producing messages with the public
- Big idea  
"Museum made together with the people"
- Engaging with customers  
Nationwide donation campaign and the public participation event
- Consistency and continuity





# Actions in 2010

- Advertisement inside the subway train, promoting the donation campaign

"Making together with the peopl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어제를 통해 새로운 내일을 여는 곳,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치 광화문 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개관일정 2013년 2월 개관(예정)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중한 자료를 **기증** 받습니다.

국민 개인의 소중한 기록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자료 기증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Tel. 02)3704-9953 Fax. 02)3704-9947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자료정리실 Tel. 02)590-6386 Fax. 02)590-6390

홈페이지 <http://donation.museumrok.go.kr>



# Actions in 2010

- Newspaper article introducing a donator and his own story, Oct. 21, 2010

朝鮮日報

2010년 10월 21일 목요일 A35면 사람들

## 통신표... 표창장... 평생 모은 기록물 303점 박물관 기증

73세 이무상씨 “누군가가 즐겁게 봐준다면 조금도 아깝지 않아”

“어렸을 적 내 성적이 다 나와 있네. 요즘으로 말하면 통신표야. 우리 때는 통신표라고 불렀지.”

2013년 현 문화체육관광부(서울 종로구 세종로) 자리에 세워질 대한민국의사박물관에 가장 많은 기록물을 기증한 이무상(73)씨가 63년 전 받은 ‘통신표’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세로쓰기에 모두 한자다. 1947년 7월 25일이 ‘檀記 四二八十年 七月二十五日(단기 4280년 7월 25일)’이라고 돼 있다.

평생 모은 기록물 303점을 대한민국의사박물관에 모두 내놓은 그는 다시 ‘통신표’를 가리키며 “‘이흥재’라는 사람이 (통신표를) 안 찾아간 모양이지? 이름에 줄 딱 고고 내 이름을 썼잖아. 종이가 부족해 다른 학생 통신표를 재활용한 거야”라고 했다. 그가 보여준 자료들은 대부분 누렇게 바랬지만, 해진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보관상태가 좋았다.

“평생 손때 묻은 것들이라 아깝기도 하고, 하찮은 것들이 무슨 도움 되겠나 싶어 처음엔 고민 많이 했어. 그런데 대단할 것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이지만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

그가 기증한 자료마다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다. 이씨는 “1959년 재현철에 공주경찰서장으로부터 받은 ‘모범 대학생’ 표창장으로 다음 해 4·19혁명 때 잡혀간 대학 친구 20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공주경찰서장이 이씨를 보더니 친구들을 풀어줬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 ‘통신표’는 은사로 하여금 그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준 징검다리였다. 이씨가 창덕여중 교사로 일할 때 초등 1학년 시절 답일이 교장으로 부임했다고 한다. 이씨가 “찾아봐지도 않다가 인사를 드리려니 죄송하다”며 책상 위에 통신표를 올려놓았더니 은사가 “아, 이게 나냐”며 웃었다고 한다.

이씨는 “고등학교 때까지의 자료 수집은 어머니 공이 컸다”며 “어머니는 6·25 전쟁 통에도 자식들 기록들을 가장 먼저 챙기셨다”고 했다. 어머니는 1·4후퇴 때 뒷산에 구덩이를 파고 아주 큰 항아리 3개를 묻었다. 그 안에 형제들이 받은 성적표와 상장 등을 넣었다고 한다.

이씨는 6살 때부터 물건들을 수집했다. 첫 대상은 성냥갑이었다. 너무 많아져 집 한구석에 쌓여두었다고 한다. 우표도 모았다. 이씨는 “성냥갑과 우표 따위를 노끈으로 묶어 군대 가기 전 공간 깊은 곳에 넣어뒀는데, 제대하고 와 보니 이사하면서 일꾼들이 쓰러가인 줄 알고 버렸더라”고 했다.

“그냥 쌓아두면 결국은 버려질 수도 있는 물건들이잖아. 다 내놓았지만 조금도 아깝진 않아. 게다가 앞으로 누가 됐건 신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면 얼마나 좋아.”

심현정 기자 [heriam@chosun.com](mailto:heriam@chosun.com)



심현정 기자  
이무상씨가 자신이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을 가리키고 있다.

A man who donated 303 objects, which he had kept for his whole life, to the Museum





# Actions in 2010

- Free newspaper article, <Donation Relay of 2,000 Materials> Nov. 17. 2010

08



metrolocal

About 2,000 materials have been donated for 4 months since the campaign was launched

일제시대 상장부터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자료까지...

## 사료 2천점 '기증 릴레이'

25일 착공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시민 기증 잇따라

2013년 2월 개관할 예정인 대한민국의사박물관에 전시될 전시품 기증 운동이 시민의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대한민국의사박물관 건립추진단은 한국 근·현대사 자료 기증 운동을 시작한 지난 6월 말 이후 4개월 만에 2000여 점을 접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기증 자료는 정부 관련 자료부터 국제 행사 관련 자료 등 다양하다. 황지현씨는 1978년 제9대 박정희 대통령과 81년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61년 정부 청사(현 문화

체육관광부 건물) 낙성 등 정부 관련 자료를 기증했다. 유홍준씨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당시 이면지를 활용해 만든 통지표와 상장, 졸업장 등을 맡겼다.

통신표, 표창장 등 평생 모은 기록물 330점 전부를 기증한 이무상씨는 "대단할 것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이지만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증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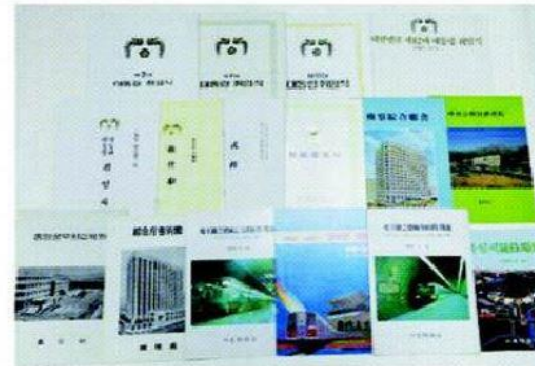
건립추진단 성남기 단장은 "국민이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때 대한민국의사박물관 건립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관심을 가

져줄 것을 당부했다.

기증 대상은 한국 근·현대사 관련 문서나 증서, 출판·인쇄물, 사진, 동영상, 유품, 기념품, 생활용품 등 다양하다. 시민이 기증한 자료는 자료수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증을 결정하며, 자료등록 과정을 거쳐 국가에 귀속해 영구 보존한다. 자료 기증자에게는 자료 기증증서를 발급해 준다.

한편 박물관은 오는 25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공사에 착수, 서울 광화문 옛 문화부 건물을 리모델링한 곳에 들어선다. 문의: 전화 02)3704-9953, e-메일 yh2fw@korea.kr

/김유리기자-grass100@metroseoul.co.kr



▲역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자료가 포함된 황지현씨의 기증품.

▶유홍준씨가 기증한 한국전쟁 당시 우등상장.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Actions in 2010

- The public participation on-line event, Oct. and Nov. 2010



Leaving messages for support of the Museum on Tree of History

"Making together with the peopl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 Actions in 2010

- The public participation on-line event, Oct. and Nov. 2010



Posting photos with stories,  
<The Story of Korea in My Photo>

"You are the heroes and heroines in the history of the Republic. The photos containing trails of your lives are the pieces of the history of the Republic."

# Actions in 2010

- Ground-breaking ceremony, Nov. 25. 2010





# Actions in 2010

- Newspaper opinion piece by a poet, one of the Committee members, Nov. 23. 2010

朝鮮日報

2010년 11월 23일 화요일 A35면 오피니언

기고

## ‘우리들의 이야기’ 담을 대한민국 박물관

건국부터 G20의 의장국이 되기까지 우리나라 발전의 역사를 한곳에 담아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세워진다고 한다. 박물관을 세운다는 것은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국민의 꿈과 노력을 젊은 세대들이 느끼고, 공감하게 하며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박물관 건립으로 국민이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게 하고, 우리 역사의 혈관을 볼 수 있게 됐으면 한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잊고 살아간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습을 보며, 세계는 우리를 희망을 잃은 나라로 보았다. 그러나 우리의 할머니·할아버지들은 주저 앉지 않고 기어이 일어나 천둥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냈다. 먼 이국 땅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힘들 때마다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대한민국’이라고 외칠 때 국민 모두가 눈물이 핑 도는 것은 그 절박했던 고난의 역사와 국민적 자긍심이 합쳐진 것이다. 모든 세대가 이를 함께 공감해야 다음 세대에도 발전과 희망이 있다.

6·25 때 굶주렸다고 말하면 어린 학생들은 “라면이 있잖아요?”라고 말한다. 대



신 달자  
시인

한민국의 고난과 희생의 과거에 대해 젊은이들은 잘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한다. 이들에게 할아버지·할머니·부모님이 살아온 길을 알려주고, 부모 세대가 ‘희망’ 하나를 갖고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현장을 실감나게 보여줘야 한다.

외국의 역사박물관을 둘러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그 나라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에는 유대인의 인간학이 담겨 있고, 폴란드 바르샤바의 봉기 박물관에는 전쟁의 참상이 충실히 보존돼 있다.

박물관은 진실(眞實)이다. 사라지지 않게 하고,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현장을 지키는 것이다. 그 진실의 현장을 보고 오늘을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신의 힘을 각인시키는 스승이 박물관이다.

지금 이 세계에 대한민국의 정신보다 더 단단하고 지혜롭고 강인한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전시하고 보관함으로써 세계인들에게도 대한민국의 정신을 알려야 한다. 우리를 잘 모르는 선진국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을 알리고, 우리의 길을 따라와야 하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표지가 돼야 한다. 100년 전 나라까지 잃은 국치(國恥)의 국민이 어떻게 일어섰는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계 역사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사료(史料)만 가지고 만들 수 없다. 유물만 전시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는 꿈과 눈물, 감동이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누구, 누구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 편, 너희 편 의 것도 될 수 없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이 박물관은 나의 것’이라는 애정을 가졌으면 한다. 할아버지·할머니·부모님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란 생각을 했으면 한다. 그렇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역사가의 것도, 정치인의 것도, 예술인의 것도 아니다. 바로 너와 나, 우리들의 것이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길 곳이다.

<The museum that will contain ‘our sto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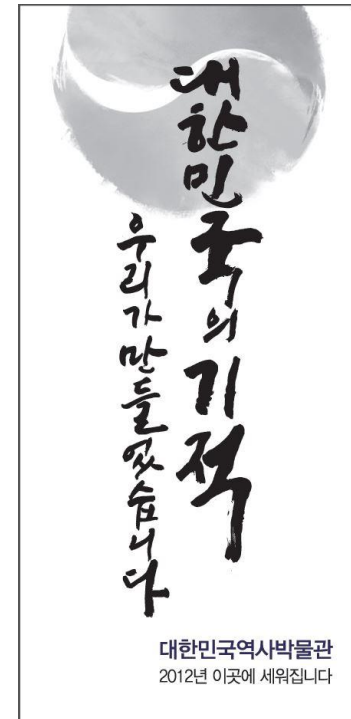
“This Museum does not belong to historians, politicians or artists. It belongs to us: you and me. Our stories will be told here.”



# Actions in 2010

- Outdoor banners of the ground-breaking ceremony, Nov. 25. 2010

"The Miracle of Korea, We Have Made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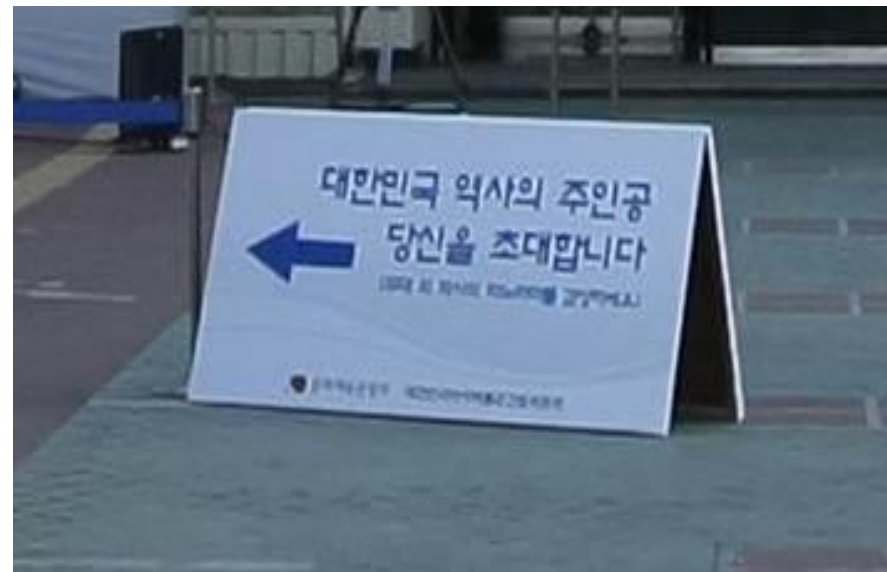


# Actions in 2010

- Standing signboards at the ground-breaking ceremony, Nov. 25. 2010



"We invite you, the heroes and heroines of the history of the Republic"





# Actions in 2010

- The public participation event at the ground-breaking ceremony, Nov. 25. 2010

Leaving messages of hope on Tree of History



# Actions in 2010

- The public participation event at the ground-breaking ceremony, Nov. 25.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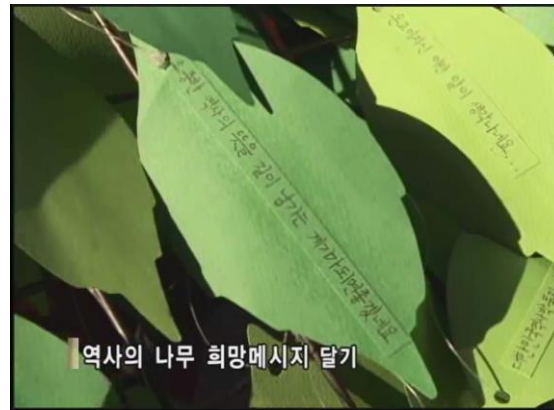
Leaving messages of hope on Tree of History



# Actions in 2010

- The public participation event at the ground-breaking ceremony, Nov. 25. 2010

Leaving messages of hope on Tree of History





# Actions in 2010

- Screen fence covering the construction site



"The  
Miracle of  
Korea,  
We Have  
Made It"

# Actions in 2011

- Progress report to the public, Feb. 25. 2011



# Actions in 2011

- Advertisement inside the subway train, promoting the donation campaign

"Making together with the peopl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발전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승하며,  
국민의 자긍심 고양을 통해 국가발전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2012년 12월  
광화문국가상징거리(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 들어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Committee for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중한 자료를 기증 받습니다.

### 자료 기증 안내

대상 개항기부터 현재까지의 근·현대사 관련 기록물·유물·기념품·생활용품 등  
문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TEL. 02-3704-9953)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자료정리실 (TEL. 02-590-6386)

홈페이지 [www.museumrok.go.kr](http://www.museumrok.go.kr)





# Actions in 2011

- Free newspaper articles about the donation campaign, Apr. 2011

"People's private records reborn as the history of the Republic"

12 public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Focus  
www.focus.co.kr

## ‘역사박물관’ 건립 순항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국민들의 열띤 참여 속에 순항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 박물관건립추진단’ (건립추진단)은 전국 각지에서 기증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면서 공식기증 자료가 4200여점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캠페인 참여 열기가 매우 뜨겁다고 18일 밝혔다.

건립추진단은 ‘기적의 역사’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조망하는 역사박물관을 건립기로 하고 지난해 6월부터 ‘범국민 자료기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울 세종로 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를 리모델링해 세워지는 역사박물관은 2012년 12월 말 개관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등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승

국민 개인 소중한 기록들 ‘기적의 대한민국 역사’로 재탄생  
자료기증 캠페인 열기 후끈...구한말 주판 등 4200점 접수

하는 한편,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국민통합을 이끌어냄으로써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건립 목적이다.

수집 대상은 1876년 강화도조약을 전후한 개항기에서 현재까지 우리의 근·현대사를 조망할 수 있는 관련 기록물(문서, 출판·인쇄물, 사진·동영상 등)과 유품, 기념품, 생활용품 등이다.

현재 기증된 물품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일제 강점기 이전인 구한말(대한제국, 1897-1910) 시대의 주판이다. 김정자(76)씨의 조부가 전북 남원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면서 사용했던 것이다. 김씨는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벽시계도 기증했다. 최다 기증자인 공재연(67)씨는 1940년대 이후

의 각종 기념 도서와 포스터, 우표, 담배 등을 무려 1000여점이나 내놔다.

1946년 국민학교 1학년 통지표와 1964년 첫 교사 임용장 등 303점의 개인 기록물을 기증한 교사 출신의 이무상(74)씨는 “황야무림 결국 버려질 수도 있는 물건들을 누군가 즐겁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흐뭇하다”고 밝혔다.

건립추진단의 신광섭 단장은 “누구의 인생이라도 그 속에는 개인적 경험을 넘어 역사적 보편성을 지니는 사건들이 있게 마련”이라면서 “수많은 개인적인 사건과 자료들이 모여 당대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통해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은 기자 yjsa@focus.co.kr



구한말 시대 주판



각종 기념물과 사진 등

▶자료 기증은 건립추진단 전화(02-590-6386)나 팩스(02-590-6390)를 통하거나 인터넷 기증신청 홈페이지 (donation.museumok.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립추진단 직원이 직접 방문에 자료를 검토한 후 인수하며, 인수된 자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증 여부가 결정된다. 수증된 자료는 국가에 귀속돼 영구 보존되고 기증자에게는 증서가 발급된다.

2011년 4월 26일 화요일

Focus  
www.focus.co.kr

## 국민 교육열·모성애 ‘대한민국 기적’ 날다

역사박물관 기증 자료 분석

통지표 등 교육 관련 최대  
어머니 덕분에 간직 가능

‘기적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날다쁜 교육열과 지극한 모성애였음이 새삼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건립추진단)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인 ‘범국민 자료기증 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4200여점을 중간 집계한 결과, 상장·통지표·출입장·임명장 등 교육관련 자료가 전체의 19.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무상(75)씨가 총 283점의 교육자료를 기증해 가장 많았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 1946년부터 대학원까지 받은 상장, 통지표, 졸업·입학증서, 임명장과 30여년간 교과서 제작하면서 받은 각종 임명장과 자격증, 이수증, 위촉장 등을 내놓았다. 이씨는 “어머니는 1·4 후퇴 때 뒷산에 큰 항아리 3개를 묻어 그 안에 우리 형제들의 상장과 통지표를 보관하는 등 전쟁 중에도 자식들의 교육자료를 가장 소중히 여겼었다”고 말했다.

이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기증자가 학생시절의 교육자료를 평생 간직할 수 있던 것은 어머니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민국



최씨는 상장, 남씨는 ‘단기’로 표기된 광복 직후(1947년)의 상장.



1943년도 초등학교 입학 기념사진.

을 세계 최빈국에서 불과 1세기 만에 G20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인재들을 키워낸 저력이 어머니들의 교육열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1941년 이후 1945년 광복 이전까지 교육자료에는 일본식으로 창씨개명된 이름이 적혀 있어 나라 잃은 함담함이 여린 것인지는 느낄 수 있다. 광복 직후부터 1950년대 초까지는 상장조차 이면지를 활용했거나 인쇄가 아닌 통사본이어서 물자가 부족했던 당시의 상황을 가늠해 한다. 또 1947년의 한 상장은 ‘상장’이라는 순 한글 제목과 함께 서기가 아닌 단기로 표기돼 당시 민주주의가 한껏 고조됐음을 확인시켜준다.

박영은 기자



# Actions in 2011

- Free newspaper article introducing donators and their stories, May 3. 2011

##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 역사박물관 기증 자료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이 지난해 6월부터 진행 중인 '범국민 자료기증 캠페인'을 통해 2일 현재 4200여점의 기증품이 쇄도했다. 기증품들에는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의 근대사



### 제1회 총인구조사 기념 재떨이 월남 파병 군인과 펜팔 편지 등 캠페인 통해 4200점 사료 확보

와 1945년 해방 이후 현대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 홍성재(71)씨가 기증한 '1949년 제1회 총인구조사 기념 낚시 재떨이'는 1949년 5월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실시된 총인구조사를 기념해 정부가 제작한 것이다. 기증된 재떨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

가로서 틀을 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다. 덮개에 '총인구조사'라고 투각되어 있고, 글자 사이사이에 '제일회기념'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옆면에는 '단기 4282.5.1'이라 새겨져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61년까지는 단기를 사용하도록 법제화됐었다. 당시 조사에서 우리나라 인구는 2018만 명으로 집계됐다.

▶ '1951년 6·25전쟁 중 미 종군 기자가 찍은 흑백사진'은 사진 속

주인공인 박영자(74)씨가 기증했다. 박씨 가족은 서울수복 후 흩어머니가 만든 만국기를 유엔군에게 팔며 생계를 꾸렸단다. 사진은 1951년 어느 날 지나던 미국의 종군기자가 만국기를 배경으로 박씨의 모습을 찍어준 것이다. 당시 서울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박씨는 지난해 우연히 미국 종군기자 존 리치(93)가 6·25전쟁 60주년을 기념해 펴낸 '컬러로 보는 한국전쟁'을 살펴보다, 자신의 모습

이 담긴 다른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박씨는 수소문 끝에 존 리치와 전화해 기억을 반추하며 회포를 풀었다고 한다.

▶ '1970년대 초 베트남전쟁 파병 군인과의 펜팔 편지'는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70년대 초 파병 군인과 펜팔을 하던 박경희(73)씨의 기증품이다. 한국은 1964년 7월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8개월 동안 30만명이 넘는 병사를 베트남전쟁에 파견했다. 한국군은 베트남전쟁에서 5000명 이상이 전사하고 1만명 이상이 부상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편지에는 파병 군인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전쟁터의 긴장감 등이 담겨 있다. 박영순 기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서울 세종로 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를 리모델링해 2012년 12월 말까지 건립된다. 자료기증 신청 및 문의는 건립추진단 전화(02-590-6386)나 팩스(02-590-6390), 인터넷(donation.museumrok.go.kr)을 통해 하면 된다.

A 74-year-old woman who donated her photo taken by an US soldier just after the Korean War





# Actions in 2011

- Free newspaper article about the donation campaign, Sept. 8. 2011

www.metroseoul.co.kr  
2011년 9월 8일 목요일

## 사진·일기도 소중한 역사

### 내년말 개관 대한민국의사박물관 근·현대 자료 기증운동

서울 세종로 옛 문화부 청사가 역사박물관으로 탈바꿈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2월 말 국내 유일의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인 '대한민국의사박물관' 개관을 위해 범국민 자료 기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지난달부터는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자료 기증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신광섭 대한민국의사박물관 추진단장은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서는 5만 점 이상의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구입·기증 외에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의 소장 자료 수집, 대여 등의 다양한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개성 정전회담 공보집' '대한민국 건국 국채증서' 등 우리 현대사를 읽을 수 있는 자료 5500여 점을 기증받았다. 특히 지난달부터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자료 기증운동을 전개, 재외 공관·동포 재단을 통해 기증 신청을 받고 있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료 기증 대상은 1876년 개항기



2012년 말 개관할 예정인 대한민국의사박물관의 조감도.

부터 현재까지를 조망할 수 있는 관련 기록물(문서, 출판·인쇄물, 사진·동영상 등)과 유품, 기념품, 생활용품 등이다.

관련 문의는 건립추진단(전화 02-590-6386·팩스 02-590-6390)이나 거주 국내 문화원·문화홍보원에 하면 되며, 인터넷(www.mu

seumrok.go.kr)으로도 가능하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승하려는 목적으로 건립 중인 '대한민국의사박물관'은 옛 문화부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별관 부지 일부를 증축해 연면적 1만434㎡ 규모로 세워진다.

/미국명기자 kmlee@

<Even Personal Photos and Journals Can Be Important Historical Materials>



# Actions in 2011

- The public participation on-line event, June and July 20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민참여캠페인!

HOME EVENT 1 EVENT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온라인 이벤트

## 당신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기간 : 2011년 6월 24일 ~ 2011년 7월 15일  
대상 :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EVENT 1**  
새로운 도약 2011 대한민국  
퀴즈 풀고 희망 메시지 남기기!

나는 대한민국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대한민국 역사와 관련된 퀴즈를 풀고, 역사박물관에 거는 기대감이나 성공적 건립을 기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응모하신 분들에게는 심사를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EVENT 2**  
대한민국과 나의 추억의 만남  
나의 애장품에 담긴 이야기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한 여러분들의 추억을 기다립니다  
기록물과 유물, 기념품, 생활용품 등 여러분의 애장품 사진을 올리고 애장품에 담긴 사연을 작성해 주세요!  
응모하신 분들에게는 심사를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하기

기증갤러리 보러가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110-755 서울특별시 중로구 중학동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603호 대표전화 02(3704)-9933 팩스 02(3704)-9947 저작권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에 있습니다

"You are the history of the Republic itself."

Telling the stories about your own precious things,  
<The Story in My Cherished Thing>

# Actions in 2011

- The public participation on-line event, June and July 2011

My father's unexpressed love :  
school reports, student IDs, name tags, etc.



제목: 아버지의 숨겨진 사랑

ID: dvoke

내용: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일제강점기때 성적표를, 아버지께서는 저의 성적표와 학생증,수험표,명찰, 학원수강증등 나에 관한 모든걸 모아두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걸 찾았습니다.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살아 생전에 저에게 따뜻한 감정 표현을 하신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모아둔 걸 보고 저는 아버지의 사랑과 향수를 느낍니다. 병원에서 몇년을 계시다가 세상을 등지셨지만, 이후 저는 이걸 발견하고 이세상에 부모님이 계시다는 자체만으로 그 존재감이 얼마나 큰 건지 깨달게 됩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사랑에 저는 항상 죄송하고 아쉬움에 가슴이 저려 옵니다. 비록 세상에는 안 계시지만. 이것에서 저는 아버지의 숨결을 느낍니다. 저에게 세상 그 어떤게 이것보다 소중할 수 있을까요?

# Actions in 2011

- The public participation on-line event, June and July 2011

## My grandmother's bellows



제목: 할머니의 풍로~

ID: ssff700

풍로는 옛날 부엌아궁이에 불을 지펴 가마솥에 밥을 지을때 없어서는 안될 고마운 기계였죠. 이 풍로는 십여년전 돌아가신 저희 친할머니께서 젊었을때부터 사용하셨던건데, 50년도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적 방학때 시골 할머니댁에 놀러가면, 저 풍로를 장난감삼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는 손잡이를 돌리면 드르륵 드르륵 소리와함께 선풍기 바람같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게 어찌나 짹고 신기했던지...

할머니는 저 풍로를 늘 부엌 아궁이옆에 신주단지처럼 모셔놔있지요.

오랜만에 풍로를 보니, 그옛날 할머니께서 풍로를 돌려가며 아궁이 불을 보시던 모습이 무척 그립습니다.



# Actions in 2011

- The public participation on-line event, June and July 2011

## Sewing machine inherited from mother-in-law



제목: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미싱.

ID: tkfkd777

### 내용: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예전에 한복가게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노환과 당뇨로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시지만, 저 미싱하나로 6남매를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키셨지요. 지금도 가끔 저에게 저 미싱의 안부를 물을 정도로 미싱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어요. 어머니에게 미싱을 처음 물려받을땐 세월의 흔적으로 작동하기 불편했었는데, 어머니의 허락을받아 궁리 끝에 미싱에 모터를 달아 한결 수월하게 사용할수있게 &#46124;습니다. 구식과 신식의 조화라고 할까요! 서로 어울릴것 같지 않지만, 기특하게도 잘 조화를 이뤄 사용하기에 전혀 불편함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역시 딸아이가 혹시 필요하면, 깨끗이 잘사용해 물려주고 싶은 우리집 보물이랍니다.

# Actions in 2011

- The public participation on-line event, June and July 2011

## My father's old camera



제목: 할아버지 사진기

ID: bjs0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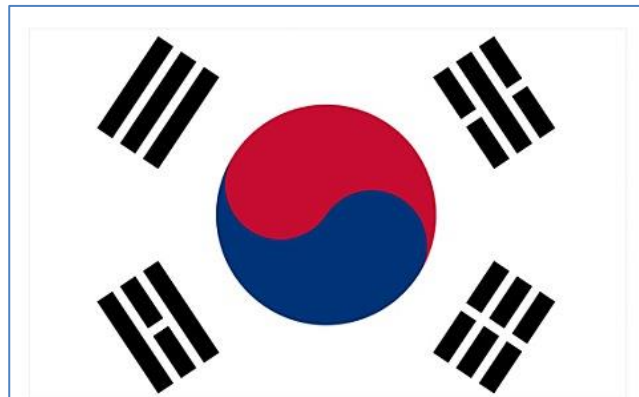
내용: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사진기 입니다. 어릴때 아버지께서 퇴근만 하시면 사진기를 정성스럽게 닦으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 사진기로 우리 삼남매의 행복한 사진을 찍어주셨고 정말 많은 여행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와서 책장 한구석에서 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네요.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이제는 닦아주기가 조금은 귀찮아집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정성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마음으로 깨끗하게 닦아주려고 합니다. 우리집의 역사보물 사진기 였습니다.

# Actions in 2011

- Museum Identity and the national flag of Korea, 'Taeguek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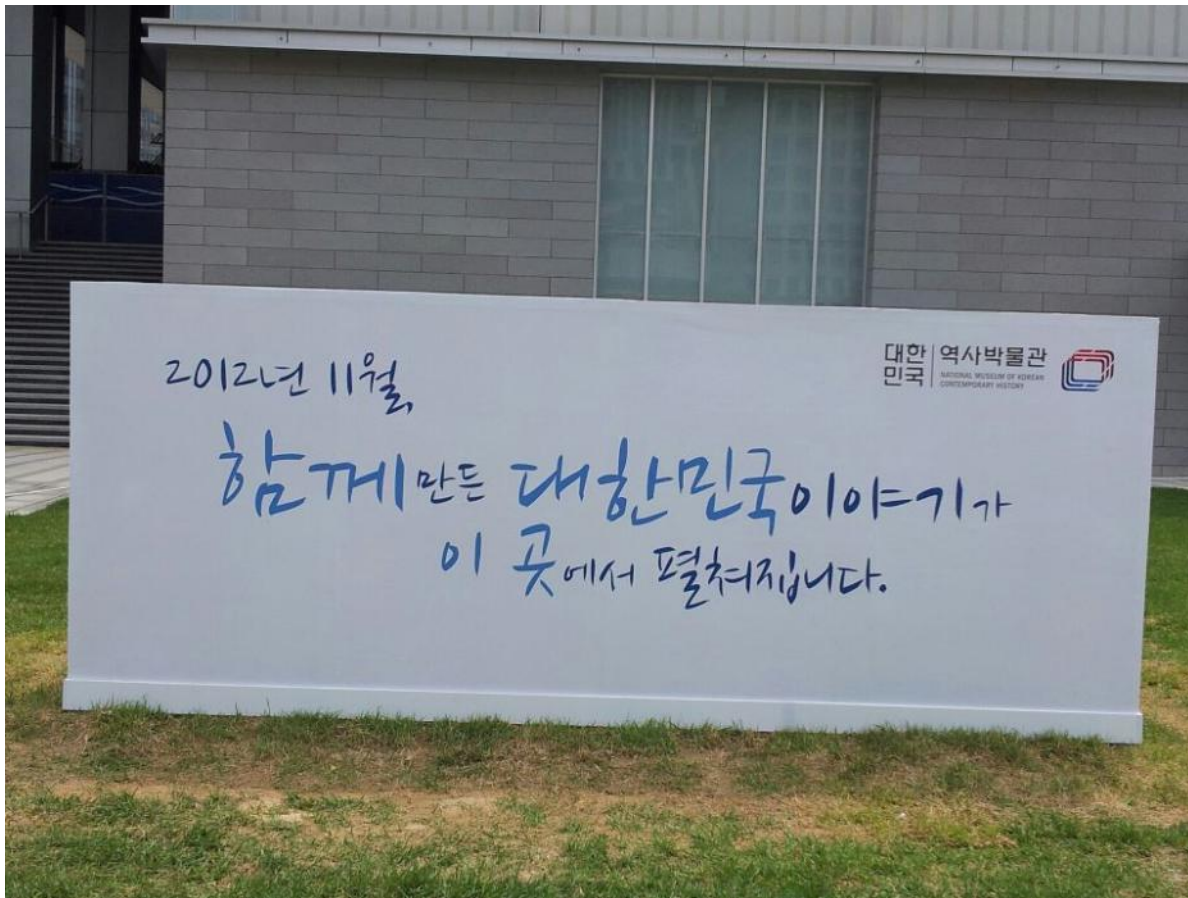
대한민국 | 역사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 Actions in 2012

- Lawn sign cover



"In November 2012, the story of Korea made together with the people will be unfolded here."



# Actions in 2012

- Promotional video clip

"The Museum is being made together with the people"



# Actions in 2012

- Opening ceremony, Dec. 26. 2012



President's congratulatory speech





# Actions in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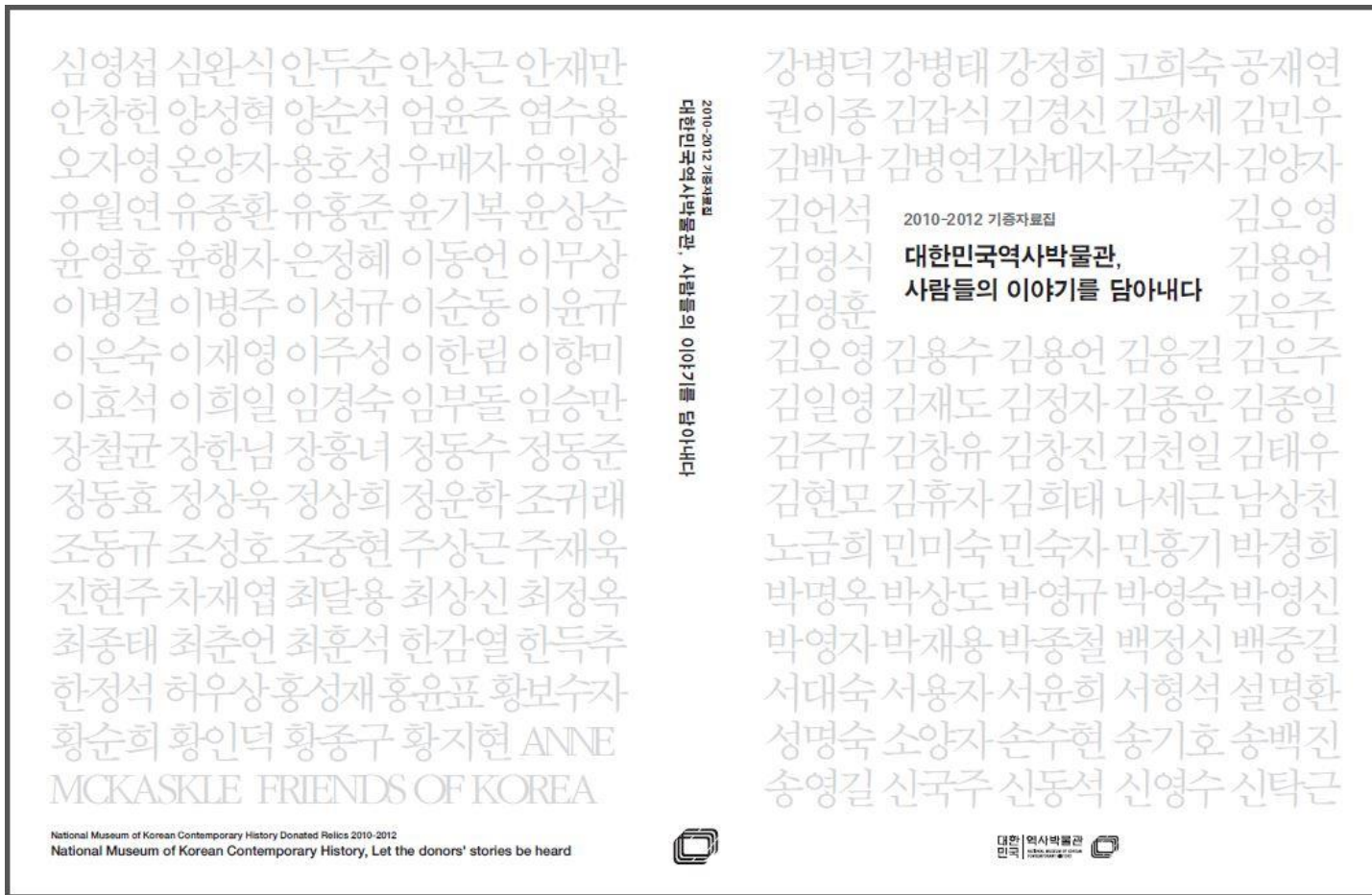
- Opening ceremony, Dec. 26. 2012



Ordinary attendance : miners to West Germany during 1960s and 1970s

# Actions since 2013

- Book introducing the main gifts and donator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telling stories of the people>

Names of donators are written on the cover

# Actions since 2013

- Book introducing the main gifts and donators

## 황인덕

1939년생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거주  
2011년 8월 8일 기증  
일간지에 실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련 기사를 보고 기증하였다.

이 사진 속 자료는 6·25 전쟁 중인 1951년부터 3~4년간 기증자가 사용하였던 구두닦이 통이다. 6·25전쟁은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불러왔고, 수많은 사람이 고달픈 나날을 보내야 하였다. 어른은 물론이고 굶주린 아이들도 먹고 살기 위해 구두닦이나 좌판을 들고 행상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 구두닦이통은 나무로 만들어진 일제형으로, 구둣솔과 구두약 등을 넣어 휴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핏 보기에 엉성한 구두닦이통은 6·25전쟁 속에서 막대한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사람들의 애환을 담고 있다. 이후 황인덕씨는 군대에 입대하였고, 제대 후인 1964년에 철도청에 들어가 1998년까지 34년간 철도 공무원으로 일하였다. 구두닦이통 외에 철도청중앙보급사무소 위촉장, 구권 등 추가신고 예일허가서, 1960~1970년대 승차권류 표본 등도 기증하였다. 황인덕씨의 기증자료는 그 시기의 생활사와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그 가치가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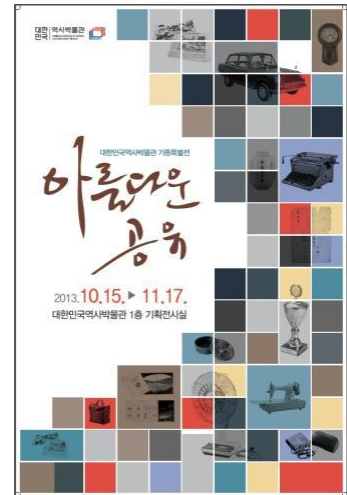
구두닦이통  
23.5×20.5 | 1960년대

Shoeshine kit box donated by a man who worked as a shoeblick for living just after the Korean War



# Actions since 2013

- Special exhibition of donated objects, <Beautiful Sharing>, Oct. 2013 ~ Feb. 2014



# Actions sinc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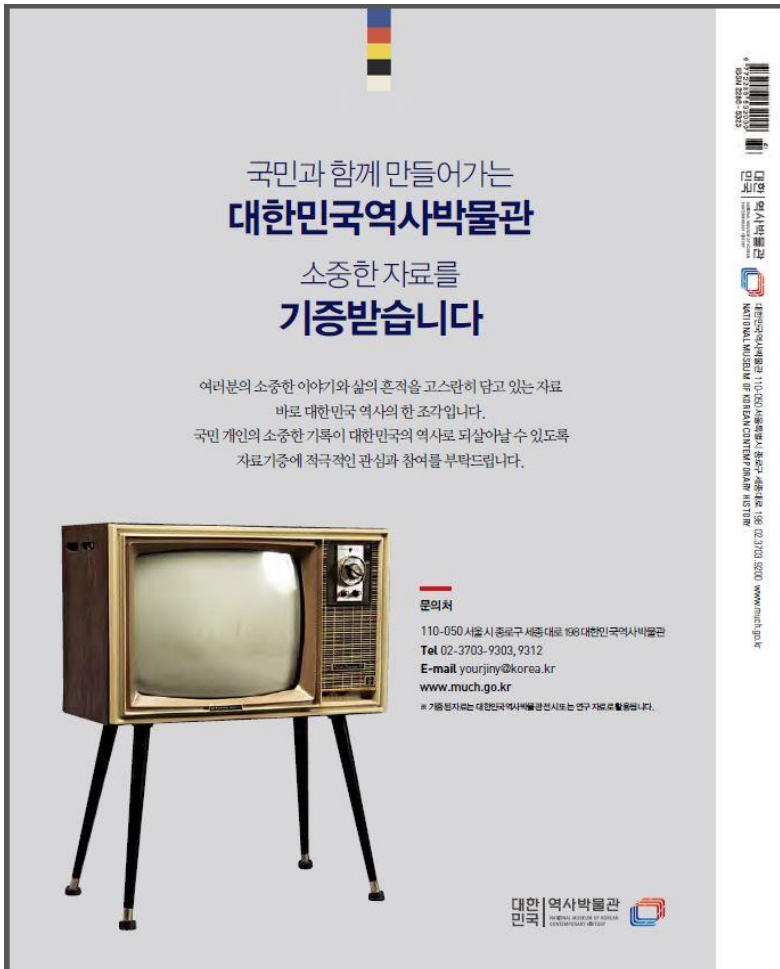
- Special exhibition of donated objects, <Beautiful Sharing>, Oct. 2013 ~ Feb. 2014



Her story was being told in the exhibition

# Actions since 2013

- Advertising the donation campaign in the Museum's quarterly magazine, 2014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중한 자료를  
**기증받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자료  
바로 대한민국 역사의 한 조각입니다.  
국민 개인의 소중한 기록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자료기증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110-05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Tel 02-3703-9303, 9312  
E-mail yourjiny@korea.kr  
www.much.go.kr  
※ 기증된 자료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또는 연구 자료로 활용됩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CENTRAL CULTURAL COMPLEX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중한 자료를 기증받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자료  
바로 대한민국 역사의 한 조각입니다.  
국민 개인의 소중한 기록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자료기증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110-05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Tel 02-3703-9303, 9312  
E-mail yourjiny@korea.kr  
www.much.go.kr  
※ 기증된 자료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또는 연구 자료로 활용됩니다.

국립건국사기 국립 병원에서 사용하던 혈압계, 백만환 기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CENTRAL CULTURAL COMPLEX



# Actions since 2013

- Special Exhibition, <The History Seen Through Our Photos>, Dec. 2013



# Actions since 2013

- Advertisement at subway stations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www.much.go.kr](http://www.much.go.kr)

모두 함께 엮어가는 우리 이야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Weaving the story of Korea together,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전시실  
Exhibition Halls

문화행사  
Cultural Event

카페  
Cafe

옥상정원  
Rooftop Garden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  
A Historical & Cultural Space Open for Everyone's Joy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Sejong-daero 198, Jongno-gu, Seoul 02-3703-9200

# Actions since 2013

- Promotional video clip





# Conclusion

- International symposium,  
<Historical Debates in the World: Conflicts and Mediation>, Dec. 2013



---

Thank you.

---

대한 | 역사박물관  
민국 |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